



상생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주)벽호

윤전·매엽 전 공정 CIP3로 인쇄품질 완벽 관리

(주)벽호(대표이사 권준성)는 1996년 벽호문화사라는 이름으로 교육출판기업인 (주)지학사의 관계사로 설립됐다. 1999년 파주로 이전한 이후 꾸준한 투자로 설비 현대화와 공정의 표준화를 이뤘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을 육성·영입하면서 교육 출판물뿐만 아니라 단행본, 잡지, 카탈로그, 전단지에서부터 패키지에 이르는 인쇄 전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도 고모리 시스템38(LR-438/625S) 국전윤전기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글 | 조갑준 기자 kjhco@print.or.kr

품질·친환경 담보하는 G7·FSC 인증 획득

벽호는 업계 최고 수준의 첨단 설비와 품질 및 공정 표준화를 보유함으로써 언제라도 안정적인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관리와 컬러매니지먼트, 공정 관리 능력을 인증하는 ISO 기반의 G7 마스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친환경 인쇄재료의 사용과 공정관리 능력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친환경 인쇄 국제인증(FSC-COO)으로부터 친환경 인쇄전문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인쇄기는 매엽과 윤전 모두 고모리 제품으로, CTP는 아그파 제품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품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제작업무지원-프리프레스-프레스-포스트프레스가 거미집처럼 연결된 벽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고객사와 불필요한 정보 교환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시간과 자원을

절감시켜 아무 걱정 없이 고객이 전문영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생산프로세스 체계를 갖췄다.

공정과 작업현장에서의 친환경

벽호의 친환경 노력은 인쇄공정은 물론이고 작업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쇄 전 공정에서 알코올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파우더의 사용량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윤전기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회수시스템을 통해 난방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을 통해 매달 한 번씩 파주시청으로부터 받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최근 도입한 고모리 국전 윤전기



패키징 인쇄에 활용되는 매업 UV 인쇄기

10년간 270억 원 설비 투자 · 철저한 품질 관리

벽호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윤전기 3대, 매업기 3대, 제책기 2대 등을 비롯한 총 27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 이 기간 동안 부단히 시스템의 자동화를 이뤘으며, 품질관리 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유기적인 하나의 조직으로 만듦으로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팀워크를 완벽히 구축했다. 인력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이뤄졌다.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함으로써 1년 내내 고객으로부터 계약사항을 넘어서는 클레임을

받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고객대응 체계를 만들었다. 아울러 직원복지후생을 향상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터를 구축해 나갔다. 아울러 보유한 매업기와 윤전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를 CIP3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높은 인쇄품질과 그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원래 지학사의 협력 업체로 탄생한 만큼 출판 물량이 절대적이었지만 현재는 상업인쇄물과 패키지 분야로 사업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까지는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0%선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

미니인터뷰 이경원 (주)벽호 영업생산본부 본부장



“모든 장비 안정적 품질 관리 · 향후 CIP4 계획”

수 있다. 시장의 변화에 항상 앞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벽호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주)벽호가 추구하는 사업이 타사와 비교되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품질이 뛰어나다고 자신한다. 매업과 윤전 전 공정을 CIP3로 묶음으로써 전체 인쇄물량에 대한 품질 안정성을 이뤘다. 한 기계를 CIP3로 관리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와 같이 보유한 전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품질 안정성이 1년에 한 번씩 품질 테스트를 받는 G7 인증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향후에는 CIP4까지 공정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자신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학교, 유치원 등과 같이 거주 및 교육시설 가운데 위치해 있는 만큼 생산현장의 환경 관리는 타 업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매달 한 번씩 파주시로부터 소음, 매연, 폐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환경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벽호에 있어 고객은 어떤 존재인가?

파트너이자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고객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고객은 물론이고, 아직 (주)벽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예비 고객들도 벽호에 한 번 방문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방문해 보면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설비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공정관리 시스템에 대해 분명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국전윤전기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출판물의 대세가 4×6 계열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국판 계열이 많아졌다. 이미지, 도표와 같은 그래픽이 많이 표현된 출판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판형이 국판 계열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동률 90%를 넘었던 4×6전지 윤전기의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국전 윤전기의 도입을 자극했다고 할